

# 익산국토청 2024년 업무계획 발표 “뒷북” 지적

### 호남 국도 및 해상교량 건설·지역개발사업 계획 등 담겨 지역 발전·경제활성화·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큰 관심 올해 새해 업무계획 발표 시점 예년보다 1개월 이상 늦어 일각 “유관기관 등 아랑곳하지 않는 기관 편의주의적 행태”

전북과 전남·광주 지역 국책사업지원과 국도건설·지역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는 익산국토청(청장 엄장호·이하 익산국토청)이 올해 업무계획을 예년보다 1개월 이상 늦은 3월 하순에 발표해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국토청이 호남지역에서 추진하는 국도 및 해상교량의 건설·관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역개발 및 국가산업단지 지원 등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국민생활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익산국토청이 이러한 사업을 위해 투입하는 한해 예산이 1조원이 넘고 있다. 따라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익산국토청의 국도건설과 지역개발사업의 방향성이 어떻게 수립됐는지와 어느 시·군 지역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등에 대해 호남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건설업체·지역주민·인론의 촉각이 쏠린다.

익산국토청은 이에 부응하듯 연례적으로 국책사업지원·국도건설 및 지역개발사업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수립·확정해 매년 2월 초·중순에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왔다.

최근년의 경우 새해 업무계획 발표 시점을 보면 2021년 2월 18일, 2022년 2월 14일, 2023년 2월 10일 등으로 늦어도 2월 하순 이전이었다.

그러나 익산국토청은 올해의 경우 새해 업무계획을 3월 25일자로 확정했고 언론에 배포한 시점은 이보다 4일 늦은 3월 29일이었다.

이처럼 올해 익산국토청의 새해 업무계획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넘어 1/4분기 말에 발표되자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익산국토청이 새해 업무계획 발표를 호남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건설업체·지역주민·인론의 관심 등은 아랑곳 하지 않고 느장을 부리거나 기관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익산국토청은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호남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도로 6,058억원, 지역개발 1,024억원, 국도관리 3,179억원, 보상 841억원 등 총 1조 1,34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완주 용진·전주 우아 등 28개 계속사업과 동면·송광 등 8개 신규사업(동면·송광, 비금·임태, 해리·부안, 빛그린산단, 부안·흥덕1·2, 수곡·신석, 현경·해제) 총 36개(6,058억원, 310.1km)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까지 전체예산의 65% 이상을 집행하고, 25개 시·군 186건의 지역개발사업(국고보조 지역개발 46건 550억, 도서개발 140건 474억원 총 186개 1,024억

원)을 지원해 지역별 경기회복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안가·도심지 등이 근접한 지하 굴착(20m↑) 현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량·터널 등 관내 공공이용 1,792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행실태 점검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에 대한 주기적 품질점검·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점검 실시 등 불량자재 생산 근절 및 양질의 품질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스마트 CCTV, ‘교통사고 사전예측 시스템(교차로보존)’, ‘노후 차량 실시간 과적단속 시스템’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구축으로 사고예방에도 힘쓴다.

아울러 선형 및 포장 불량, 상습 정체 구간 등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스마트 복합휴게·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대 구축해 이용자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홍동기 기자

# “위기의 농촌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필요하다”

### 익산시의회 오임선·조남석 의원 4개 농촌학교 교장과 간담회 관내에 주소 둔 농촌학교 학생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제안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과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학교의 기숙사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과 조남석 의원은 이날 4일 익산시 관내 4개 농촌학교 교장과 간담회(교장 양성열·익산고(교장 김중환)·전북과학고(교장 류영기)·함열여고(교장 이종길) 등 기숙사가 있는 농촌지역 4개 학교 교장과 만나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임선 위원장과 조남석 의원은 농촌학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익산시 교육경비보조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농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학교장들은 “기숙사 유무가 신

입생 유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들이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 받는다면 외부 지역 학생들을 농촌학교에 유치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익산고 김중환 교장은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뿐 아니라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까지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함열여고 이종길 교장은 “타 지역 학생들이 익산시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인구 유입의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익산시에 거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며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오임선 위원장은 “농촌학교 기숙사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과 조남석 의원은 이날 4일 익산시 관내 4개 농촌학교 교장과 만나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급식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학교 먼저 지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예산부터 확보 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조남석 의원은 “농촌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교육경비보조 지원 조례에 농촌

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항을 넣음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익산시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익산시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많다. 최근 교육발전특구지정도 같은 맥락이다”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동기 기자

# 익산을 한병도 ‘어르신·농촌’ 공약 발표

### 이달 5일 용안면 들녘서 ‘익산 발전 완성 비전’ 3탄으로 제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농촌 정비사업·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어르신 존경·대접받는 한국, 농촌서도 살기 좋은 익산 만들겠다”

제22대 총선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이달 5일 농촌현장인 용안면 들녘에서 ‘익산 발전 완성 비전’ 3탄으로 농촌·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한병도 후보는 “익산시를 지역구에 새로 편입된 용포·성당·용안·용동·망성면을 그동안에도 자주 찾았다”면서 “용안면에서 공약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서두를 꺼냈다.

한 후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농촌 쇠퇴·농가 빈곤도 가속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더 존경받고 대접받는 대한민국, 농촌에서도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경로당 방문 주치의 사업 추진 등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1인 어르신 가구 돌봄 방안 마련



민주당 익산을 한병도 후보가 이달 5일 ‘익산 발전 완성 비전’ 3탄으로 농촌·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등을 함께 제시하며, “어르신이 활력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촌 환경 정비사업 추진 △영농후 폐자재 거점 배출시설 확충 △상습 침수구역 배수장 증설 및 하천 정비 보강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재해 보상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을 함께 제시했다. /홍동기 기자

# 익산갑 김민서 “마사회 분사 유치하겠다”

### 이달 2일 익산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제1호 공약으로 제시

제22대 총선 익산갑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가 “한국마사회 분사를 익산에 유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지역 총선 후보 홍일점인 김민서 후보는 이날 2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 시에도 한국마사회 분사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며 “제22대 총선 1호 공약도 한국마사회 분사 유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으로 연 매출이 6조5천억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다”며 “익산으로 유치될 경우 세입·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는 1조 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3월 5일 경북 영천의 국회의원인 한국마사회를 영천으로 옮기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저 김민서는 황금알을 낳는 한국마사회를 경북 영천으로 빼앗길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당선되면 관철시켜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익산 금마는 청동시대부터 말을 키운 곳으로 그 명마들은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과하마로 불릴 정도



제22대 총선 익산갑 국회의원 김민서 후보가 이날 2일 오전 익산시청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마사회 분사를 익산에 유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로 익산은 말과 밀접한 곳이고, 용안면 공공승마장·VR 말 산업체험관 등 말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서울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 등 교통의 중심지인 지리적 특성이 한국마사회 유치에 최적의 장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민금에 대한민국 최장 거리인 제 5명마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한국마사회 관계자가 새민금에 경마장이 유치될 경우 분사도 이질할 계획이 있다고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새민금인수위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동기 기자

# 익산갑이춘석, 배산서 줍강·4·10 총선 사전투표 독려

### 제22대 총선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는 이날 4일 배산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 ‘줍강’을 하며,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날 선거운동원들과 배산공원을 찾은 이춘석 후보는 “하루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배산을 찾으십니다. 환경정화 활동으로 배산을 더욱 깨끗하게 가꾸고자 한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또한 선거운동원들은 사전투표 일정이 적힌 포켓을 들고 등산객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익산의 끼여기는 불빛을 되살리고,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뜻이 합쳐져야 가능하다”며 “익산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동기 기자

# 비례정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익산역서 지지호소

### 창당후 두번째로 3월 30일 방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례정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 30일 전북을 방문하면서 창당이후 익산을 두 번째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군산에 이어 익산을 방문한 조국 대표는 익산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똥꾸 개라고 말하고 싶다”며 “그런 이간질에 넘어갈 이재명 대표나 조국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연대를 심판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조 대표는 이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발의할 건데, 이재명과 조국을 이간질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대비해 빨리 변호인 선임하시고 상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정책적 연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 30일 창당이후 익산을 두 번째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 목표는 공식적으로 10석이고 법안과 정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민주당과의 연대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익산 구도심을 둘러본

소감을 전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익산역 광장으로 오기 전 익산 구도심을 둘러봤는데, 상가가 거의 문을 닫아 가슴이 아팠고 전국의 구도심이 이렇게 쇠락하고 있다”면서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이 아니라 지역균형과 자치분권문제가 확립돼야 지역소멸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익산시민들에게 “비가 오는 난리통에도 많이 외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9월에 한표를 주신다면 그 표값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3월 14일 창당 후 첫 번째 익산을 찾아 신동 원별교 총부에서 비공개로 나상호 교정원장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오산면 장신리 50여명 카페에서 전북지역 지지자 50여명과 저녁식사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진바 있다. /홍동기 기자

# 이중선 익산시의원, 입주 앞둔 신축아파트 안전대책 모색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은 이날 4일 마동 제일 풍경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민원 사항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마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사거리 신호과속 카메라 안전펜스 설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마동 제일풍경채 앞 삼거리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아파트 공사 완료 후에는 차량과 시민들이 이동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동기 기자

#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전국 실업 최강 입증

### 남자 에페 단체 금메달, 여자 사브르 단체 동메달 획득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이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메달을 획득하며 최강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제26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중년실업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익산시청 펜싱팀은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먼저 남자 에페 단체전에 출전한 정병찬·양운진·김종준·김찬우팀은 8강 부진실증, 4강 울산광역시청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무대에서 광주 서구청을 36대33으로 꺾으며 올해 1월에 열린 전국 남·녀중년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팀 내 에이스인 권영준 선수의 부상으로 상위 입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으나, 올해 신규 입단한 김종준, 김찬우 선수의 대담한 경기 운영과 기존 선수들의 빼어난 활약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최신희, 조예원, 최수빈, 최지영 선수가 출전한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서도 값진 동메달을 차지하며 여자팀 시즌 첫 메달을 획득했다. /박해정 기자

# 동아리연합회 &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3월 30일 자기 주도적 행사 계획 및 진행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성길)은 2024년 동아리 활동에 시작을 알리기 위해 3월 30일 모듬동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다목적홀에서 2024 청소년동아리연합회&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4 동아리연합회&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은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행사 계획 및 진행을 통해 주인 의식을 부여하고, 동아리연합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간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동아리(IC·루스·유니온·건망중·히에온·푸른나비효과·청담누리) 등 15개의 동아리 팀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12명 등 총 55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날 강다정·박가연·임가람·장유진·김가를 총 5명의 청소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6가지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게임들을 진행했다./홍동기 기자

이번 발대식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소속감 향상과 서로간의 친목을 다졌다. /홍동기 기자